현전성의 검토를 통한 주드의 실패 의미 고찰

202021770 사학과 이진

목차

Ⅰ.서론 ····· 1
Ⅱ.본론
1.현전성 ····· 1
2.사회적 이상으로의 현전 ····· 2
3.개인적 이상으로의 현전 ····· 3
Ⅲ.결론 ····· 6
참고 문헌 ····· 8

서론

토머스 하디(Thomas Hardy)의 「이름 없는 주드」(Jude the Obscure)는 동시대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소 전복적인 사상으로 인해 출간된 지 125년이 지난 현대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종류의 비평과 담론을 생산해내는 문제적 품이다. 그러나 「이름 없는 주드」에 내재된 문학적 존엄성과 문제성은 비단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주제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등장인물들이 지닌 입체적 성격과 이로써 추동되는 비전형적인 내러티브 또한 해당 작품의 문학적 위상과 비평 가치를 드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비평가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두(최소한 대부분이) 납득 가능한' 비평이나 분석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쉽사리 포착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담론에 기인한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담론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작업을 거치며 우리는 작품의 본질에 보다 더 근접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 개개인의 독법을 통해 「이름 없는 주드」의 등장인물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확장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점검하는 것은 수많은 비평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에세이는 이와 같이 「이름 없는 주드」에 나타난 인물, 그중에서도 작품의 주인공이자 작가의 분신인 주드 폴리를 핵심적으로 탐구하고, 그의 존재로부터 유추되는 의미를 확장하여 작품의 주제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현전성

인물에 대한 비평을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름 없는 주드」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이름을 대응하는 캐릭토님(charactonym)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설이다. 그러므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가령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에 따르면 주드 폴리(Jude Fawley)의 이름은 아둔함을 의미하는 영단어 'folly'에서, 수 브라이드헤드(Sue Bridehead)의 이름은 신부를 뜻하는 'bride'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방증하듯 주드는 어느 정도 고지식하고 아둔한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 또한 신부의 이미지로 은유되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의 의미를 모든 인물의 성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려 든다면 오히려 텍스트에 반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주드와 수를 비롯한 인물들은 제각기 하나의 속성으로 포착될 수 없는 비정형적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중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필롯슨(Richard Phillotson)과 아라벨라(Arabella Donn) 등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필롯슨은 수를 이용하여 욕망을 충족하는 속물인 동시에 인습 사이에 은폐된 선을 찾아내 실현할 줄 아는 사려 깊은 모습을 지닌다. 아라벨라 또한 주드에 대한 혐오감과 소유욕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이중적 감정은 특유의 지배력과 맞물려 극의 전개를 주도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입체성, 혹은 양가성은 작품의 제목인 '이름 없는 주드'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제목에서, '주드'라는 이름은 '이름 없음(Obscure)'이라는 역설적 수식어로 구조화된다. 이를 확장하면 주드는 아둔한 동시에 아둔하지 않은 양가적 속성의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가성은 극의 등장인물들을 구성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며, 그렇기에 본 에세이는 주드의 양가적 속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확대 적용하여 작품에 드러난 실패의 개념을 새롭게 고찰하는 것이 최종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불가측성과 포착 불가능성을 내재한 인물의 성격을 분류하는 단일한 기준이나 범주를 마련하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물의 입장(stance)을 나타내는 지표는 몇 가지 떠올려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전성(présence)이다. 현전성이란 어떤 대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성질을 일컫는다.

「이름 없는 주드」에 나타나는 현전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습과 종교로 대변되는 사회적 이상이다. 인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사회적 이상으로의 현전을 시도, 혹은 거부하며 그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구축해나간다. 예컨대 수 브라이드헤드는 빈곤과 여성이라는 외부 환경과 이상을 추구하는 내적 기질로 인해 엄숙함과 위선을 요구하는 사회의 이상에 현전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억압과 배제라는 사회적 폭력에 노출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사회로의 현전은 사회를 견인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현전, 곧 정상과 비정상의 이원적 폭력의 범주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는 인물 자신의 이상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사회적 이상의 대척점에 놓인 개념으로, 사회에 의해 범주화되거나 속박될 수 없는 근원적 이상향과 욕망에 대한 충실함으로 대변된다. 다시 한 번 수 브라이드헤드를 인용하자면, 그녀가 추구하는 성별을 초월한 사랑과 자연스러움에 대한 낭만적 지향이 이에 포함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고 사회적 이상에 현전함으로써 결국 파멸하게 된다. 이는 세계와의 화해를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유성의 파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이처럼 현전성은 인물들의 동향과 사회와의 관계 같은 요소들을 분석할 때 중요한 지표로 기능한다. 본 에세이의 분석 방법론 또한 주드의 현전을 우선적으로 논증하고, 거기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회적 이상으로의 현전

주드 폴리는 사회의 이상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 즉 현전되지 않은 존재다. 사회의 관점에서 주드는 결혼으로 위시되는 신 앞에서의 약속을 배반한 동시에 타인의 아내를 탐한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정의된다. 올드브리컴(2/184)과 크라이스트민스터(2/241)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 포섭되지 못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이데올로기의 힘은 피어슨(John Pierson)이 말하는 사회적 배제의 모습을 띤다. 주드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사회, 정치, 경제적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를 제약[1] 받게 되고, 이는 주드로 하여금 거처를 잃고 방황하는 '유목민적 생활'을 택하게끔 만든다. 이 과정에서 주드가 지닌 지성과 인품, 내적 열망 등의 요소들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정상의 기준', 예컨대 종교와 결혼, 사유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남은 것이라고는 가끔씩 들어오는 석공 작업뿐이지

1) 「사회적 배제」, 최창현,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2014.7

만, 십계명 사건(2/194) 이후에는 석공으로서의 지위마저 추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드는 인간적 생존과 사회적 삶 모든 것을 박탈당한 존재, 그럼으로써 사회 안에 현존하지만 부재하는 유령적 존재가 된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인간의 법과 신의 법 양자 모두의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로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상정한다.[2] 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와 국가는 법과 질서에 따라 구성원을 수호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법적, 사회적으로 비식별적인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해당 영역에 포함된 개인들의 권리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호모 사케르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축된 식별 불가능의 영역에 구속된 존재들을 일컫는다. 물론 아감벤의 정치철학적 도식을 작품 안에 완벽히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드를 대하는 사회의 작동원리를 살펴본다면 그의 삶 또한 호모 사케르의 관점에서 이해될 요지가 있을 것이다. 주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적 수단을 잃는다. 즉 정치적 삶의 창구를 몰수당한다. 이후 주드는 미래에 있을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능성마저 말소되는데, 조합원장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기능공 상호 발전 협회에서 권고사직당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비단 정치적 층위의 제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전에 언급한 십계명 사건과 이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로 인해 주드는 근미래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의식주 중에서도 주(宙)를 가장 중시하던 어린 주드의 모습은(1/66) 하숙집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모습과(2/242) 대비를 이루며 생존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요소마저 상실한 그의 사케르적 지위를 드러낸다. 아울러 사람들이 수와 주드의 마음과 정감과 입장과 두려움을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이해할 수도 없다는 서술은 식별 불가능의 영역에 위치한 주드의 사회적 위치를 시사한다.(2/184) 잠깐이지만 수를 해방시켜준 직후의 필롯슨도 이와 같은 '예외 상태'를 겪는다는 점에서 사회가 현전하지 못한 개인을 다루는 태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2/98) 한편으로 주드의 비식별성은 생득적인 측면도 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장면에(1/36) 드러나듯 그는 어릴 적부터 빈곤과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정상성과 유리된 삶을 살았으며, 일반적인 구성원들보다 낮은 사회적, 존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호모 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사회가 전유하는 여러 요소들, 특히 인적 관계망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라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위치할지언정 그것이 제공하는 여러 이점과 자원으로부터는 단절되는 것이다. 종교와 같은 상징자원에 대한 접근 또한 마찬가지다. 질곡과 수난에 노출된 벌거벗겨진 존재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표상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주권을 창출하는 도구적 인간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한다. 가령 섀스턴은 '교회 마당이 교회 첨탑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위치하고, 맥주가 음료수보다 더 풍부'(2/11)하다는 문장에 드러나듯 신학적, 윤리적으로 부패한 도시다. 그런 곳에서 주드의 존재는 종교와 사회가 지닌 모순점과 무질서를 은폐하고 문자적으로 구획된 사회적 이상의 경계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주드라는 예외적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사회가 지닌 위선과 모순은 정상의 탈을 쓴 채 대물림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드는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의해 사회로부터 열외당한 부재자지만, 그럼에도 현존하는 양가적 존재, 유령이다.

개인적 이상으로의 현전

다음으로 고려해볼 문제는 이상에 대한 현전성이다. 사회에 현전하지 못하는 주드는 끊임없이 이상으로의 현전을 시도한다. 이야기가 전개되며 변화를 거친다고 해도 이상주의적 성

2)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토니 모리슨의 <자비>를 중심으로」, 권혁미,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10

향은 주드의 삶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주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상 또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주드의 이상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드러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범주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며, 어느 정도의 불명료함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아예 포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까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에서 그가 지닌 사상의 윤곽을 짚어볼 수 있다. 어린 주드는 까마귀를 보며 하느님이 만든 새들에게 좋은 것이 하느님의 정원사에게는 좋지 않다는 잘못된 지상의 법칙을 떠올리며,(1/34) '한 부류를 위한 자비심이 다른 부류에게는 잔인함이라는 사실이 그가 생각하는 조화의 개념을 역겹게'(1/36)만든다고 생각한다. 이 장면으로부터 조화로 흐르는 힘에 대한 지향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방해하고 위계와 폭력을 배출하는 힘에 대한 반발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요컨대 그에게 '하느님의 새'와 '하느님의 정원사' 사이에 작동하는 폭력적 위계관계는 자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주드의 삶 전반에 나타난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는커녕 자신을 이용하려는 아라벨라조차 '같은 동료 인간'이기 때문에 도우려는 모습은 조화와 공생을 추구하는 주드식 정의관의 전형적인 발로다.(2/127) 한편 주드에게 이상은 결코 포섭되거나 범주화될 수 없는 존재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며, 그렇기에 인식하지 못할지언정 은폐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인습이 요구하는 타협적 삶과 그와 반하는 요소들에 대한 폭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이상에 충실한 주드의 모습은, 정의를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자신을 구성하는 '존재의 문법'으로 치환하여 받아들이는 주드의 태도를 방증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첫째는 유약하고 내향적인 기질로 인해 외부 폭력에 대한 자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내키지 않지만 어찌됐든 아라벨라의 압박에 의해 돼지를 죽이는(1/115) 인물이며, 죄책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과음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비타협적 정의관과 내향적 속성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소수자성(minorityness)은 앞서 논한 비식별의 영역에 그를 고정시키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매사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는 그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상황 개선의 실패와도 직결된다. 특정 분야에 있어 지나치게 고루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의 사상은 분명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축에 속할 것이나, 비혼주의나 비성적(非性的) 사랑관처럼 혁명적인 생각들은 대부분 수의 의견이다. 또한 그녀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주드의 정의관은 언제나 타자에 대한 사랑과 용서로 위시되는 기독교적 윤리관에 의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이상은 사회 문제를 조명할지언정 이를 전복하고 해체할만한 원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허나 주드가 처한 시대환경과 그에게 가해지는 이념적 폭력의 강도를 고려해봤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대신, 주드는 끊임없이 경험한 적 없는 대상을 낭만적으로 각색한다. 그가 대상을 이상화하는 방식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대상에 내재한 관계적 도식을 제거하고 오직 외부적으로 표상되는 상징적 이미지만을 극화하는 것이다. 일례로 어린 주드는 '볼품없는 곳'인 메리그린의 대체제로서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신앙과 학문의 성지로 미화하고, 그곳의 종각 소리를 듣는 등 미래의 이상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듯한 모습을 보인다.(1/46) 이처럼 미화된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현재 상황으로부터 유래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미래를 환대할 의지를 되새기는 것이다.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대한 어린 시절의 낭만을 되돌아보며 아라벨라와의 이별을 극복하는 장면은 낭만으로 삶을 지탱하는 주드의 성향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1/132) 매 장章의 제목이 현재의 사건이나 인물과 같은 관계적 요소가 아닌 지명으로 표상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편 주드는 인물을 우상화하고 자아를 의탁하기도 한다. 어린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를 미화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필롯슨이라는 인격적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낭만적 착시는 이후

수에게로 옮겨간다. 장소에 대한 낭만화와 마찬가지로, 인물에 대한 우상화 역시 주드의 일방적이고 비경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드에게 세계는 얼마간 미래적이며, 현실의 문법과 유리된 경향이 있다. 더불어 미래와 현재, 두 시간에 걸쳐진 존재라는 점은 그의 양가적 속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다시 현전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주드는 선천적인 성향과 더불어 현실에서의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적 지향점을 미래로 연기한다. 그의 이상은 빈번히 현실 경험과 괴리되어 있거나(1/50)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1/64)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 요컨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소속되려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상태에 대한 주드의 현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주드에게 음주는 발붙일 곳 없이 지속적인 실패를 겪어야만 하는 정신적 유령으로서의 절망을 함축하는 행위다.

하지만 여기서 주드에 대한 분석을 끝마친다면 그것 또한 부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주드를 단순히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수동적 부적응자의 이미지로만 소비하는 것은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드의 자율적 선택을 묵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재자적 성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성향에 반하는 외부로부터의 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재하는 존재, 현전하지 못한 존재로 남은 것은 주드 자신의 선택이다. 따라서 주체성은 주드의 삶을 구성하는 또다른 요체이며, 그렇기에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주드는 끊임없이 대상의 낭만적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이를 렌즈삼아 세계로의 접속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는 곧 현전의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런 주드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드루실라 할머니(Aunt Drusilla)의 장례식을 끝마친 후 수와 나눈 키스가 그것이다.(2/42) 그 과정에서 주드는 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며, 집에 돌아와 그가 지닌 신학 서적들을 전소한다. 이는 정의감에 의거하여 표출된 여타의 행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책을 태우며 일어난 내면적 각성을 통해 암시된다. 그는 '회칠한 무덤의 위선자'가 아닌 '평범한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평정을(2/44) 얻는다. 이는 지금까지의 주드가 세계에 대한 현전을 어느 정도 추구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마침내 이데올로기와의 화해 즉 현전에 대한 강요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세계로의 현전이 성공 여부와 별개로 고유의 정체성을 거세하는 '무덤의 위선'일 뿐이며, 이상을 좇는 행위가 '평범한 죄인'으로 그를 내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러나 예정된 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끝내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며,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안도감을 얻는다. 이러한 선택을 중점으로 봤을 때, 주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유령이 아니다.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말은 더이상 고정된 귀착점에 대한 현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낭만을 좇는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아울러 포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있을 어떠한 압제에도 굴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상에 투신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다. 드루실라를 세계와의 합치를 꾀하던 과거의 주드가 투영된 존재라고 본다면, 이러한 결의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천명된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숭고미를 자아낸다.

이상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이상으로의 현전 여부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드의 삶은 심정적 각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암울하다. 오히려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암담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그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범주는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넘어, 지인들에 의한 일상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다. 아라벨라는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주변 인물들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를 지배하려 들며(2/216), 꼬마시간아범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함으로써 주드식 낭만의 기

원인 미래를 말살한다(2/250). 마지막으로 필롯슨은 결혼을 통해 수를 속박함으로써 그의 절망감에 쐐기를 박는다.(1/298) 그럼에도 주드는 이상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수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사회적 이상 위에 위치시키며, 학문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불굴의 의지는 크라이스트민스터를 통해 명료해진다. 크라이스트민스터는 주드의 두 이상이 모두 투영된 장소다. 어린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를 낭만적으로 그리며 그의 미래를 투영한다. 그러나 이후 부패하고 고답적인 현실에 환멸감을 느끼며 그곳을 떠난다. 이후 주드는 다시금 크라이스트민스터로의 복귀를 꿈꾸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의 태도는 이전의 것과 상이한 형태를 띤다.

"그곳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을 경멸해요. 그런 것에 대한 존경심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텐데 말이오. (…) 그러나 나에게 그곳은 내 어린 시절의 꿈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것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곧 크라이스트민스터는 깨어나겠지요. 그리고 관대해지겠지요.(2/223)"

여기서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세 가지 시간대가 중첩된 공간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 시간은 '어린 시절의 꿈'으로 일컬어지는 과거의 시간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낭만적 이상이 투영되어 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을 경멸'하는 현재의 시간이다. 이는 주드가 도시를 떠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며, 그럼으로써 이상에 대한 그의 현전을 좌초시킨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간을 제시한다. '곧 깨어나고 관대해질' 미래의 시간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드러난다. 그에게 과거와 현재로 은유되는 이상에 대한 현전 가능성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며, 새로운 이상은 불투명한 가능성에 대한 충실함 자체로 존재가치를 얻는 것이다. 모든 지표가 실패를 지목하는 순간에조차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이상을 추구해나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형태의 주드식 이상이자 그를 마침내 현전하게끔 만드는 '주드의 문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드 폴리는 유령처럼 현재와 미래, 이상과 현실, 성공과 실패의 경계 사이를 떠도는 양가적 존재다.

결론

그럼에도 주드는 결국 실패한다. 수의 변심은 주드의 이상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중 수는 주드를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주드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이상 두 요소 모두에 현전하지 못한 유령이며 그렇기에 주드를 포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주드에게 수는 고행의 동반자인 동시에 정신적 고향이며, 이상 자체기도 하다. 수에게서 길이의 폭과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발언은 그녀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사랑의 대상임을 넘어, 주드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2/87) 그런 수가 다시금 필롯슨에게로 돌아간 시점에서, 아울러 사회의 폭력적 이상에 현전한 시점에서(3/361) 주드의 파멸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어찌됐든 그는 현실 속에 위치한 존재이며, 수는 비존재의 영역 안에 거처하는 주드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의 파멸은 곧 주드의 파멸이며, 그녀의 실패는 주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녀가 주드와 마찬가지로 파멸할 것이라는 아라벨라의 마지막 발언(2/381)을 통해 확인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 수도 크라이스트민스터도 아닌 갈증이라는 현실의 결핍을 욕망하는 주드의 모습은(2/372) 그가 끝내 세계 속에 현전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드의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꼬마시간아범에 의해 미래의 가능성이 제거당하고 수가 필롯슨에게 돌아간 상황에서조차 주드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수의 전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장대비를 맞으며 수를 회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역설한다.(2/348) 그런 주드를 파멸로 내몬 것은 그 자신이

아닌 아라벨라와 필롯슨 등의 인물로 표상되는, 마지막까지 집요하고 비정하게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힘일 것이다. 요컨대 그의 실패는 굴복이 아닌 함락에 가깝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실패가 아니다. 이상으로의 현전이 주드 자신에 의해 견인되어온 만큼 실패 또한 그의 선택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실패는 새로운 이상의 교두보로 기능하며 실존적 성공의 요람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받을 만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마지막 순간 그가 읊조리는 욥기(2/373) 또한 투항한 포로의 푸념이 아닌 화형당하는 선각자의 간투사에 가까울 것이다.

「이름 없는 주드」는 실패에 관한 작품이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에 내재한 희망의 편린을 찾아나가는 내용이기도 하며, 그렇게 찾아낸 희망을 이정표삼아 낭만적인 미래를 염원하는 기원(祈願)이기도 하다. 제목에 나타난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의 양가적 역설 또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드는 마지막까지 명명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의 이상은 그가 사라진 현시점에서도 범인류적 고귀함을 창출하며 명맥을 이어나간다. 「이름 없는 주드」가 지닌 문학적 힘은, 이러한 작품의 유령적 이상에 연유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혁미,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토니 모리슨의 <자비>를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회, 2017

김보원, 「실패하는 이상주의자들 : 토머스 하디의 '편애'와 '편견'」, 19세기영어권문학회, 2015

김상태, 「A Study of Jude the Obscure」, 국어문학회, 1978

김용성, 「탈경계적 비교연구의 의미 지평 탐색: 토마스 하디의 『테스』 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에 나타난 근대화 사회의 여성, 사랑, 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20

김철수, 「Jude the Obscure」, 새한영어영문학, 1984

박승용, 「Thomas Hardy and His Evil God」, 새한영어영문학회, 1997

사공철, 「토마스 하디의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의 서벌턴 <더버빌가(家)의 테스>와 <비운의 주드>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회, 2020

유선무, 「<무명의 주드>에 나타난 시간의 공간화와 삶의 기술」, 새한영어영문학회, 2018

윤은주, 「Jude의 이상추구 -<무명의 주드>」, 현대영미어문학회, 2015

조희정, 「타자성의 재발견 : 토마스 하디와 테드 휴즈의 애도의 시학」, 새한영어영문학회, 2017

허석현, 「[포스트모더니즘과 주체 7] 자크 데리다 : 유령과 함께 살아가기」,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2017